

“혼례 문화 변화, 불교계 힘 보태겠다”

자승 스님, 김희정 장관 예방서 저비용 결혼 정책 동참 강조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비용 결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불교계도 힘을 보탠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저비용 결혼 문화 조성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동참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관혼상제의 비용구조가 개선됐지만, 혼례는 아직도 고비용으로 지쳐 많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결혼 비용을 낮추는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추진하려 한다. 불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찰을 부처와 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스님들의 주례 재능기부가 이뤄진다면 저비용 결혼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화려함보다 소박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한자 ‘복(福)’ 역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밥’이 있다”는 뜻이다. 소박함은 곧 행복이다”면서 “종단은 이용자의 종교와 상관없이 사찰과 산하 복지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비용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저비용 결혼 정책에 대한 불교계 동참을 요청했다.

“신도회 활성화, 교구를 중심으로”

12월 6~7일 중앙·교구신도회 임원 워크숍

신도법 개정 이후 중앙·교구 신도회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는 12월 6~7일 이틀간 광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2014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전국 교구신도회임원과 교계단체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포교부장 송묵 스님의 총책특강 '신도 지도자의 자세와 역할', 민학기 종단 신도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신도조직 역량강화 특강 '종단 신도법 개정과 회칙 개정을 통한 신도조직의 활동역량 강화', 중앙신도회 사업 브리핑 및 참가단체별 상견례,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신도조직의 발전 과제' 주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민학기 위원장은 신도법 개정에 맞춰 신도조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신도조직 활동역량 사례들을 소개했다. 민 위원장은 “교구신도회가 중심이 돼 활동해야 한다. 수월 용우사의 경우 5층짜리 교구신도회관 건물이 법당, 회의실, 강의실, 문화활동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성한

체들에게 법회 장소로 제공하거나 신도들이 회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교구신도회간 합동법회를 통해 사찰 신도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주어서 복원 기도와 같이 교구별 특색 기도, 조선 왕릉 야단법석 등을 통해 신도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 나눔문화 캠페인 행복바라미의 활동보고도 이어졌다. 이기홍 중앙신도회장은 “모듬은 2014년 10월 22일 현재 1억 8천 여만원이 모였었다. 2014년 행복바라미 캠페인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기본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거리모듬은 전년 대비 25.4%가 증가했다. 불교계 신도포교 단체의 참여를 통한 종단 내부조직 결집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특강에서 “승가의 지도력은 재가불자의 지도력과 추종력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재가불자의 지도력은 수행·봉사·전문적 지도를 바탕으로 삼보의 원력자, 포교활동의 원력자, 사회발전의 쇄신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내은 기자

“조계종의 진정한 쇄신을 요구합니다”

불자모임 2차 선언... “송담 스님께 참회하려면 결제에 오시라”

“지금 같이 말만이 아닌, 진정한 자성과 쇄신을 통해 총무원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 불자들이 내부 자정을 다잡으면서 조계종의 자정과 혁신을 요구한다.”

송담 스님 탈종 등 최근 종단 안팎에 문제에 대해 조계종의 자정을 요구하는 불자 선언이 발표됐다.

종단 자정을 위한 불자모임(공동대표 우희중, 김종규, 김경호)은 12월 1일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충국 공원에서 ‘조계종 자정을 촉구하는 재가불자 2차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불자모임은 선언식 장소를 조계사 일주문 앞으로 정했으나, 일부 노년 신도들의 항의로 자리를 옮겼다.

불자모임의 2차 선언에 앞서 대표로 나선 우희중(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김종규(교단자정센터 원장·변호사), 김경호(지지협동조합 이사장)는 그간의 경과와 발표 취지에 대해 발언했다.

우희중 교수는 “한국불교의 선지식 송담 스님은 더 이상 종단 안에서 제대로 된 수행가풍을 세울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종단의 잘못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싶었다면 방법은 많았다. 이번 동간기 결제에도 송담 스님은 대중 법문에 나설 것이다. 자승 스님께서 정말로 참회를 하겠다면 결제 법회에 인친 용화선원에 와서 직접 송담 스님을 만나시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이사장은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지문경훈)을 반드시 배운다. 이 안에는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 등을 세세히 명시했다. 스님이라면 누구나 배우는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종단이 이대로 가면 붕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정한 쇄신이 필요해 재가불자들이 나선 것”이라고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불자모임은 2차 공동선언을 통해 조계종의 진정한 자성과 쇄신을 요구하며 청정승가만을 외호할 것을 선언했다.

재가자들 총무원 앞서 선언식 “법계 행위자, 종법 맞게 처리 계파 해체 등 운영 혁신 요구” 향후 법계 행위 백서 발간 추진 일부 조계사 신도 제지해 ‘마찰’

불자모임은 선언문에서 “현재 조계종이 내세운 자성과 쇄신은 허구에 불과하고 기독교 유지를 위해 도당을 형성하고 계파야합을 통해 정치 권력들이 종단 운영을 주도하니 청정한 스님들은 외면하고 뜻 있는 불자들은 누구나 개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영향은 특정 사찰과 계파 문제로 끝나지 않고 문화적, 구조적으로 조계종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한국불교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종단 자정을 위한 불자모임은 12월 1일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충국 공원에서 ‘조계종 자정을 촉구하는 재가불자 2차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선언 대표로 나선 우희중 서울대 교수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율장과 종법에 의한 법계승을 처리할 것을 비롯해 △계파 해체 △법계승들의 공직 사퇴 △사찰 재정, 국고보조금 투명 공개 △비구니 참종권 확대 등을 요구하며 종단의 자정과 혁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불자는 오로지 청정승가만을 외호한다 △스승의 자정과 혁신이 완성될 때까지 종단 자정불사 지속 △새가자부터 지계정할 것을 다짐 △자비실천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불자모임은 “종도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허울 좋은 결집장으로 국가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교장사만 몰두한다면 불자들은 서명이나 1인 시위를 포함해 해종 승려 병단 및 비리행위 공개, 보시거부운동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불자 모임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그간 법계와 비리 등을 정리하는 백서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순 경 변호사 불자회 ‘다르마 법우회’ 주최로 3차 종단 자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내년 초에는 지도부를 정식으로 꾸려 현재 모임을 조직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14일 각계 불자 165명이 동참해 시작한 ‘청정한 바른불교를 희망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은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김희옥·조의연

4일 소견 발표... 총추위 후보자 선출

12월 16일 이사회서 최종 결정 영상문화벨트·불교학 세계화 등 각 후보 학교 발전 공약 내놔

동국대 제18대 총장 후보자로 보광 스님, 김희옥 현 총장, 조의연 교수가 최종 선출됐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는 12월 4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제18대 총장 후보자 소견 발표회에 이어 후보자 선출투표를 진행했다. 제18대 총장 선출은 12월 16일 열리는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보광 스님 “교육형 학사 운영 추구”
첫 후보자로 소견발표에 나선 보광 스님은 “일심동행(一心同行)을 주제로 한 학교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보광 스님은 “존중하는 총장, 화합하는 총장으로 먼저 동국대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5대 사학, 국내 대학 10위, 아시아 70위, 세계 400위 내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총장은 기금모연과 외연확대를 위해 밖으로 뛰고, 학교경영에는 전문성을 지닌 부총장 및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안 수립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비전2020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학교 운영방식에 있어 그동안의 기업형 운영에서 교육형 운영으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의연 교수 “동국대 브랜드 창출”
두 번째 후보로 나선 조의연 교수는



보광 스님 김희옥 조의연

‘Only One Dongguk’을 캐치프레이즈로 교육 브랜드를 구축해갈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대학은 사회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향할 가치를 먼저 선도해야 한다”며 “대외평가기관 방항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되며 논문실적 중심의 업적평가를 지양하고, 창의적 융복합 지식을 갖춘 21세기 인재 육성의 교육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1세기 새 교육브랜드 ‘동국대인’ 프로젝트 시행 △산학협력, 지역협력 사업 중점육성 △현장 중심 공감 소통 문화 확산 △건전한 재정운영 및 수익창출 구조 구축 △바이오메디 캠퍼스의 연구중

심대학 방향 수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희옥 총장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마지막 소견 발표에 나선 김희옥 총장은 ‘Re-Start Plus’를 캐치프레이즈로 경쟁과 상생의 시대를 맞아 대학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소통과 화합 △선택과 집중 △자율과 책임의 경영원칙을 먼저 밝히며 “202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여러 핵심추진정책을 펼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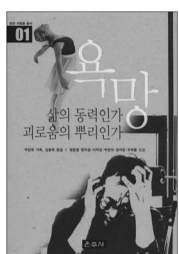
김 총장은 대학 학령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기부자 저변 확대, 총무로 영상센터 개발 및 뮤지컬 전용극장 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금 의존율을 60% 수준으로 낮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HK사업, 불교기독교문화유산 사업 등 건학이념 구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복수전공 의무화, 융합전공 지원, 의무인턴제도 등으로 취업률 제고와 역량개발프로그램 확대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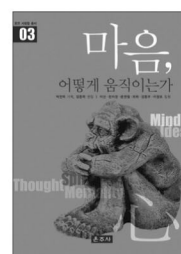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유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
504쪽 | 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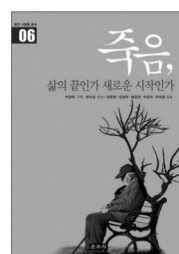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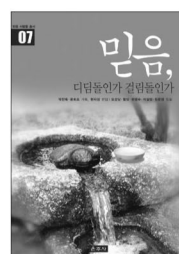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중 외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니 외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
326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일시: 11월 2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고찰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다.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88쪽/20,000원

